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가족건강성 및 문화성향과 대인관계성향간의 관계분석

김병수*

전북대학교 아동학과 겸임교수

A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Family strengths, Cultural disposit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 dispositions in Adolescent' s sex.

Kim, Byung-Su

Dept. of Child Studie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Adjunct Professor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how family strengths and cultural disposition were correlated to their interpersonal relationship. Participant of this research were 282 boys and girls who were high schools.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interpersonal dispositions between sex, 2) boys and girls were significantly concerning positive correlation among family strengths, cultural disposition and interpersonal disposition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family strengths, cultural disposition and variables influenced social relation orientation and expression orientation.

Key Words: adolescents, family strengths, cultural disposition, interpersonal relations dispositions

I. 서론

인간은 대인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문제해결의 방법도 대인 관계를 통해서 습득하게 된다. 대부분의 개인의 문제는 인간관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고, 실제 많은 청소년 상담자들은 내담자의 문제가 대부분 대인관계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한국청소년개발원, 2004; Dekovic & Janssens, 1992). 최근 청소년 사이에 조화로운 대인관계를 위협하는 집단 따돌림, 친구 따돌림과 같은 청소년 대인관계 문제가 주요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일부 청소년들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어 문제행동을 표출하기도 하고, 스트레스가 되어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타인과의 관계가 그들의 성장과 발달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은 대인관계를 통해 자아중심성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자신과 타인에 대해 객관적으로 이해될 뿐 아니라 지적, 정의적, 사회적 발달을 이루어 나아가게 되므로 청소년들의 일상에서의 대인관계가 미치는 영향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들의 대인관계 성향은 청소년이 속한 사회와 문화 속에서 사회화과정 및 가족원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고 표출된다고 볼 수 있다. 개인이 최초로 상호작용을 하는 대상은 가족이며, 개인이 가족 이외의 사람들에게 취하는 행동양식은 가족 내의 관계에 의해 형성된 대인관계의 연장이거나 반동, 혹은 보상으로 나타난다(이문행, 1994). 가족 중 부모는 자녀의 대인관계의 성향을 사회화 시키는 1차적 수단이 되고 있고, 자녀의 성별에 따라 다른 반응을 보이며, 보상과 벌을 주는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주어진 환경에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그 발달 단계의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성인기에 들어가게 된다. 학자들은 청소년의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으로 사회환경, 학교환경, 가정환경이라고 지적하고 있고, 그 중 인간형성의 기본적인 틀이 되는 것이 가정환경이라고 보고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청소년의 성장과정에 있어 가족이 최초 교육의 장이며, 청소년의 정신건강에도 중요한 영향

을 미치기 때문인데, 따라서 대인관계의 어려움, 학교생활의 부적응 등의 청소년 문제에 대해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가족을 통해서 그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김경근, 2006; 임정아, 2005; 최지은·신용주, 2003).

청소년의 대인관계성향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애정적 유대, 애착과 같은 부모와 자녀관계가 대인관계에 영향을 준다는 초점을 둔 연구(방문희, 1991; 송여옥, 2002; 심혜영, 1992; 주소영 1995; 한광희 1986; 황경옥, 2002)와,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에서 대인관계의 효과성 검증을 통한 지원(윤운성·조정란, 2006; 은혁기, 2002)에 관한 연구를 통해 가족관계가 청소년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가족 건강성에 대해서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문화는 개인의 대인관계 성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전통적인 가치관에서 대인관계는 상호의존적이고 밀착된 유대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서구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독립심, 탐험심, 창의적 행동 등을 격려하는 한편,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한 동양에서는 부모에 대한 복종, 내집단 성원들 간의 신뢰, 상황에 맞는 적절한 행동을 강조(Triandis, 1995)한다는 지적이 있다. 현대 우리사회는 개인주의 사회 사상에 바탕을 둔 서구문화가 급속도로 투입되어 확산되었고 그러면서 전통적인 가치관과 서구의 사상에 기초를 둔 가치관이 공존하고 있다. 우리의 청소년들은 표면적으로는 개인주의화 된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 깊숙이에서는 오랜 전통으로 인해 집단주의적 성향을 띠고 있을 것이다(장성숙, 2004).

국내에서의 청소년과 문화성향에 대한 연구는 스트레스의 지각 및 자아의식과 자존감, 우울감에 대한 연구(유현수, 2005; 이윤조, 2007; 정영희, 2005)로 문화성향에 따른 개인의 정신건강 및 스트레스의 대처방식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문화성향과 청소년들의 대인관계 성향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우리 가족 문화의 문화성향이 집단주의를 선호하여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요구하고 있지만, 청소년시기에는 독립성과 자주성이 함께 발달하는 시기이므로 대인관계 성향도 영향을 받

을 것이다. 또한 대인관계의 성향은 성별에 따라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청소년들에게 대인관계에 영향을 주는 가족의 건강성과 사회문화적 배경에서 파악될 수 있는 문화성향을 관련변수로 하여 성별에 따라 대인관계성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가족건강성 및 청소년들의 문화성향의 전반적인 경향을 성별에 따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대인관계 성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청소년의 대인관계 증진 프로그램 개발과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적응을 위한 상담적 개입에 유용한 함의를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가족건강성 및 문화성향, 대인관계 성향은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가?

둘째,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가족건강성 및 문화성향이 대인관계성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가족건강성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옮겨가는 과도기이다. 청소년의 성장과정에 있어 가족은 최초 교육의 장이며, 청소년의 정신건강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임정아, 2005). 가족건강성(family strengths)은 최근 들어 가족을 이해하는데 중요하고 필수적인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건강 가족적 관점(family strengths perspective)에 기초한 개념인 '건강한 가족'은 가족의 병리적, 부정적 측면보다 가족의 긍정적 측면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둔 관점이다. 즉, 건강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그 가족은 개방체계이고 어느 한 측면의 강화만으로 전체 체계가 원활하게 움직일 수 없다고 보는 관점(어은주·유영주, 1995)이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가족의 건강성과 정신건강을 연구

한 민동일(2007)의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의 가족건강성은 개인의 정신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즉 가족건강성을 양호하게 지각한 청소년일수록 정신건강도 양호하며, 자아탄력성이 높았다. 자아 탄력성이 높은 청소년들은 불안하고 주의집중이 잘 안되는 성향 혹은 타인에 대한 지나친 불신 경향 및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예민성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은 자신의 가정이 건강하다고 인식할수록 대인관계를 통한 생활적응을 더 잘한다고 말할 수 있다.

가족체계가 개인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로서 정수자(1988)는 대인관계 행동유형이 부모-자녀간의 유사성이 있음을 밝혀 대인관계 행동유형이 가족에 의해 모델링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한광희(1986)는 중고생을 대상으로 가정의 심리적 환경변인과 대인관계성향에 관한 연구에서 가정의 심리적 환경을 폐쇄적이며 거부적인 것으로 지각할수록 반항과 불신하는 대인관계성향을 보이며, 자율적인 것으로 지각할수록 대인관계에 있어서 사회관계 성향에서 사교, 우호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신귀순(2001)의 연구에서도 가족 적응력이 높을수록 아동의 대인관계성향 중에서 표현성향 중 경쟁-공격적인 대인관계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 결속력이 높을수록 사교·우호적, 과시·자기도취적인 대인관계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문화성향

문화는 개인의 인지, 행동, 정서에 일관성있게 영향을 미치고, 특히 개인/집단주의이론은 문화권이 다른 사회 및 그 성원들이 보이는 다양한 가치관, 사회적 지각, 정서, 동기, 관습, 제도 등의 차이점을 이해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틀로 사용되고 있다(Triandis, 1989, 1995).

문화성향에 대한 큰 분류는 개인주의-집단주의의 구분에서 출발된다. 개인주의는 개인을 집단과 다른 별개의 단위로 지각하며, 집단에 누를 끼치더라도 개인의 목표를 중시하며, 집단의 결속에 관심이 적고, 집단과 개인 사이에 정서적 거리감이 있는 문화이다. 반면에, 집단주의는

자아를 집단의 일부로 파악하고, 집단의 목표를 개인의 목표보다 중시하며, 집단의 결속을 강조하며, 집단에 강한 정서적 애착을 갖는 문화이다.

선호하는 문화성향은 타인과의 관계맺음과 갈등상황시 대처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아동의 문화성향과 스트레스 대응방식을 연구한 Jose, D'anna, Cafasso, Bryant, Chiker, Gein과 Zhezmer(1988)에 의하면 개인주의가 발달되어 있는 북미의 아동은 문제해결의 방식에서 개인 중심적 대처방식을 선호하는 반면, 아시아와 같은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사회적 지원의 추구하고 같은 관계지향적 대처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Rahim(1992)은 개인의 문화성향에 따라 타인과 갈등상황에서 개인주의자들은 보다 경쟁적이거나 지배적인 스타일을 채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Ohbuchi, Fukushima와 Tedeschi(1999)도 갈등상황에서 집단주의자들이 일차적으로 관계성을 파괴하지 않는 갈등해결방식(예, 중재)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고, 반면 개인주의자들은 만약 성인이자라면 분쟁해소를 위해 기꺼이 소송까지 갈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문화성향이 집단주의 성향일 경우 대인관계는 관계 중심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문화성향이 개인주의 성향일 경우 표현성향에서 경쟁적인 개인 중심적 대처를 사용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문화성향을 집단주의와 개인주의로 구분하는 것에 대해 Triandis(1988)는 개인/집단주의 이론을 좀 더 세밀하게 정련화하여 수직/수평성을 첨가한 별개의 차원으로 제시하였다. 즉 대인관계에서 위계질서를 강조하는가 아니면 평등성을 강조하는가라는 범주를 추가하여 문화를 분석할 것을 제안하였다. 같은 집단주의권이라고 해도 대인관계에서 서열, 위계성을 바탕으로 수직적 교류를 하는 문화가 있는 반면에 평등성을 바탕으로 수평적 교류를 하는 문화가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수직적 집단주의는 개인을 집단의 일부라는 측면에서 집단을 위해 개인을 희생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집단의 일체감과 위계질서를 존중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수평적 집단주의는 개인을 집단의 일부라고 보면서 모든 개인은 평등한 것으로 보는 관점이다. 그러므로 수평적 집단주의 성향을 선호하면 대인관계를 중시하고 집단원과 지도자가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정서에 대해 표현하는 것을 중시한다고 하였다(Triandis & Gelfand, 1998). 또한 개인주의에 있어서도 수직적 개인주의는 개인의 자율성을 우선으로 하되 개인들 각각이 서로 다른 존재로 인식되어 개인간의 불평등이 있음을 예상하고 개인간의 경쟁을 강조하고, 수평적 개인주의는 개인의 자율성을 우선으로 하는 것은 같지만, 모든 개인이 다소 동등한 위치를 가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신현숙·임말란(2005)도 문화성향에 대한 분류에서 수평-수직차원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회적 관계형성을 보다 잘 설명해 주는 것으로 보았고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구에서 수평적 문화성향은 부모애착과 더불어 학교생활적응에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의 청소년들은 서구문화에 비교적 많이 노출되어 있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청소년들의 문화성향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집단주의 사회인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일률적으로 집단주의 성향을 나타내고 있지 않았다(정양숙, 2004). 청소년기는 생물학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자율과 독립심을 키우는 단계이므로 개인의 선호 경향에 따라 문화성향이 달라질 것임을 유추해 볼 수 있다.

3. 대인관계 성향

대인관계(Interpersonall relation)는 소수인, 일반인으로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대인관계는 인간관계와 동의어처럼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학술적 용어로는 서로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 안범희(1984)는 인간관계(Human relations)의 의미는 인간과 인간 상호 간의 심리적 관계의 모든 측면을 지칭하는 것이지만, 대인관계는 사람을 대하는 개개인의 보편적 심리적 지향성이라는 측면에서 소수인, 특히 두 사람사이의 1대 1적인 관계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음이 광의의 인간관계와는 구별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Krech, Crutchfield와 Ballachey(1982)는 대인적 반응 특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대인관계를 역할성향(role disposition), 사회관계성향(sociometric disposition), 표현적 성향(expressive

disposition)으로 크게 구분하고 각 영역에 4개의 하위영역을 두었다. 역할성향은 자신의 권리에 대한 옹호 및 자기주장, 집단 지도력, 독립성으로 특정지우고, 사회관계성향은 타인의 수용, 사교적, 우호적인 사회적 관계의 형성, 타인의 느낌에 대한 유의한 반응으로 설명하였다. 한편 표현적 성향은 경쟁적, 공격성, 자기도취적, 반항적 반응으로 정의하였다.

이처럼 대인관계는 개인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보편적인 심리적 지향성이며 내적인 특성과 외적인 행동간의 관계이다. 즉, 개인이 타인에 대해 어떤 생각과 느낌을 가지고 반응하며 어떻게 타인을 지각하고 그에게 어떤 행위를 하는가, 또 타인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에 대한 심리적 지향성의 양식이다(Heider, 1964).

청소년기는 대인관계 형성이 미분화된 시기로 또래집단과 가족 및 주위 사람들을 통해 그들의 대인관계가치를 적용해 보는 시기이다. 특히 청소년의 행동양식은 가족에 의해 사회화되는 경향이 있다. 가족구성원들과 건강한 상호작용을 통해 대인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 사회적 능력을 소유하게 되기도 하고, 대인관계를 유지 성장시킬 수 있는 환경적 뒷받침 구실을 제공하기도 한다.

대인관계 성향과 유사한 개념인 대인문제성향을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최희량(1998)의 연구를 보면,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력이 높을수록 중고교생의 대인관계성향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응집성과 적응력이 낮을수록 냉담, 보복, 수동-공격적인 대인문제성향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한편, 대인관계 성향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대인관계 성향을 연구한 방문희(1991)의 연구에서 남학생이 독립적인 경향이 높고, 여학생은 동정적, 의존적 경향이 높다고 하였다. 또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청소년 대인관계 성향간의 관계를 성별에 따라 분석한 남연희(2008)의 연구에서 가정 분위기가 화목하지 않다고 지각하고 있을 때 사회관계성향은 반항적-불신적, 표현성향은 과시적-자기도취적인 성향이 나타났고 화목하다고 지각한 경우 사회관계성향이 사교적-우호적인 성향이 나타났다. 그리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동정적-수용적인 사회관계성향이 높았고, 표현성향 중 과시적-자기도취적 성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과 자료처리

본 연구는 청소년기에 속하는 인문계 고등학교 남녀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총 300부를 배부하여 총 298부가 회수되었으나, 이 중에서 내용기재가 부실한 것 16부를 제외한 남학생 157부, 여학생 125부, 총 282부가 최종 분석을 위한 자료로 사용되었다. 결과의 분석은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빈도분석, 신뢰도분석, t-검증, 상관관계, 다중회귀분석이 활용되었다.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본 설문에 참여한 청소년은 남학생이 157명(55.7%), 여학생은 125명(44.3%)이 참여하였고, 대부분 1-2학년 학생으로 구성되었다. 학생들의 부모의 직업에서 아버지의 직업은 다양하게 나왔고, 어머니의 직업은 남학생들의 경우 상업 서비스직(31.8%), 주부 (25.5%) 순으로 나왔고, 여학생들은 주부가 45명(36.0%), 상업서비스직이 32명(25.6%)으로 나타났다. 출생순위는 남학생의 경우 차자녀 이하가 81명(51.6%), 장자녀 64명(40.8%)였고, 여학생은 장자녀가 66명(52.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차자녀 이하가 56명(44.8%)순으로 나왔다. 자신들의 경제적 지위에 대한 지각은 중하라고 지각하는 경우가 남학생의 경우 77명(49.0%), 여학생은 62명(49.6%)으로 가장 많았고, 중상으로 지각한 경우도 남학생과 여학생 각각 59명(37.6%), 44명(35.2%)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1) 문화성향척도

문화성향은 Singelis, Triandis, Bhawuk와 Gelfand(1995)에 의하여 개발된 개인주의-집단주의 척도(Individualism Collectivism Scale; INDCOL)를 김기범(1996)이 우리나라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구분	N(%)	
		남학생 157(55.7)	여학생 125(44.3)
학년	1학년	98(62.4)	0
	2학년	57(36.3)	124(99.2)
	3학년	2(1.3)	1(.8)
부의직업	전문, 관리직	22(14.0)	22(17.6)
	사무직	28(17.8)	15(12.0)
	판매직	24(15.3)	19(15.2)
	서비스직	15(9.6)	12(9.6)
	생산, 농업, 어업	35(22.3)	27(21.6)
	운수, 노무직	17(10.8)	16(12.8)
	기타	11(7.0)	10(8.0)
모의직업	전문관리직	12(7.6)	13(10.4)
	사무직	16(10.2)	8(6.4)
	상업서비스직	50(31.8)	32(25.6)
	주부	40(25.5)	45(36.0)
	기타	30(19.1)	20(16.0)
출생순위	장자녀	64(40.8)	66(52.8)
	차자녀이하	81(51.6)	56(44.8)
	무응답	10(6.4)	3(2.4)
가정의 경제지위 지각	하	16(10.2)	14(11.2)
	중하	77(49.0)	62(49.6)
	중상	59(37.6)	44(35.2)
	상	3(1.9)	5(4.0)

※ 무 응답자는 제외함

판으로 표준화한 것을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성향을 다시 수평/수직(horizontal/vertical)으로 나누어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총 4가지 하위척도(수평적 집단주의, 수직적 집단주의, 수평적 개인주의, 수직적 개인주의)로 구성되며, 각 8문항씩 총 32문항으로 되어있다. 수평적-집단주의성향(horizontal collectivism, HC)은 공동체적 목표와 대인관계를 중시하고, 수직적-집단주의성향(vertical collectivism, VC)은 집단의 일체감과 개인의 희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자율성을 강조하는 수평적-개인주의 성향(horizontal individualism, HI)이 높다면 자율성을 강조하고, 수직적-개인주의성향(vertical individualism, VI)은 독특성과 개성을 강조하고 있다(Triandis & Gelfand, 1998).

설문에 대한 응답은 5점 Likert척도로 ‘전혀 동의하지 않음(1)’에서 ‘전적으로 동의(5)’로 이루어져있고 문화성향

유형은 각 하위 성향별로 점수를 산출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그 문화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신뢰도 계수(α)는 차례대로 .73, .63, .74, .72으로 나타났다.

2) 가족건강성척도

가족의 건강성이란 사회 심리적이고 관계적인 측면에서 가족이 지니는 건강한 성질 또는 경향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의 건강성을 측정하기 위해 어은주와 유영주(1995)가 개발한 가족 건강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몰입, 의사소통, 가치관, 적응력의 4가지 하위영역으로 구분되어 있고 총 34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에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의 건

〈표 2〉 대인관계 성향 하위요인의 내용

영역	하위요인	내 용	신뢰도계수
사회관계성향	동정적	허용적, 관용적, 민감, 약자 보호적	.67
	수용적	타인의 장점존중, 성심성의, 포용력	
	사교적	개방적, 활동적, 친밀, 소속감, 낙천적	
	우호적	온화, 친절, 친애적, 동조적, 협조적	
표현성향	경쟁적	간섭 싫어함, 자기 싫어함	.63
	공격적	비판적, 논쟁적	
	과시적	자기노출적, 과장적, 전시적, 흥분잘함	
	도취적	지나치게 낙천적, 도취적, 즉흥적	
	반항적	불평, 불만, 권위에 도전, 배타적, 반대함	
	불신적	의심, 경계적, 왜곡, 고립적	

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분석해 보았다.
Cronbach's $\alpha = .96$ 이었다.

3) 대인관계 성향척도

대인관계 성향은 윤상민(1993)의 '대인관계성향검사지'를 활용하여 사회관계성향, 표현성향에 대해 측정하였고, 총 30문항으로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부터 '매우 그렇다'(5)의 5점 Likert척도로 되어있고, 각 요인에 따른 점수가 높으면 점수를 받은 영역의 대인관계에서 그 성향이 두드러짐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신뢰도 계수는 사회관계성향의 Cronbach's $\alpha = .67$, 표현성향의 Cronbach's $\alpha = .63$ 으로 나타났다.

1. 성별에 따른 가족건강성 및 문화성향, 대인관계 성향의 차이

성별에 따라 가족건강성과 문화성향, 대인관계 성향이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가족건강성, 문화성향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인관계성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사회관계 성향에서 타인을 포용하고 동정하는 성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자기도취적이고 과시적인 성향과 같은 표현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연희(2008)의 연구결과에서도 여학생이 동정적·수용적 사회관계 성향이 남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과시적·자기도취적 표현성향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동숙(2000)의 연구에서도 표현성향에 있어서 여학생은 과시·자기도취적 성향이 강하다는 결과와 같은 결과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황인정(2008)의 연구결과에서도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표현성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IV. 연구결과

연구대상자로 참여한 고등학생들의 문화성향, 가족건강성, 대인관계성향에 대한 분포를 성별에 따라 그 차이를

〈표 3〉 성별에 따른 각 변인들의 차이

변인			M(SD)		
			남학생(N=157)	여학생(N=125)	t값
가족건강성			3.29(.62)	3.33(.67)	- .52
문화 성향	집단 주의	수평집단	3.66(.60)	3.61(.46)	.80
		수직집단	3.62(.55)	3.65(.44)	-.55
	개인 주의	수평개인	3.72(.61)	3.69(.55)	.48
		수직개인	3.27(.62)	3.27(.55)	.02
대인관계 성향	사회성향		3.30(.53)	4.80(.54)	- 2.44*
	표현성향		4.59(.66)	4.80(.54)	- 3.02**

* p<.05 ** p<.01 *** p<.001

2. 성별에 따른 가족건강성 및 문화성향이 대인관계 성향에 미치는 영향

먼저, 각 변인들 서로간의 관계를 적률상관관계를 통해 알아보았다. 먼저, 남학생의 경우 문화성향간 상관관계는 대부분의 변인들이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문화성향중 집단주의 성향은 대인관계성향의 사회성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있었으나, 수평적 개인주의 성향은 사회성향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건강성은 문화성향과 대인관계 성향 모두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문화성향과 대인관계, 가족건강성간의 상관관계는 대부분의 영역에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대인관계 성향 중 사회성향은 수평적-집단주의, 수직적-집단주의, 수직적-개인주의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학생들의 결과와 같이 수평적-개인주의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건강성은 문화성향중 수직적-개

인주의와 대인관계 성향에서는 표현성향간에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각 변인들이 대인관계 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실시 에 앞서 각 독립변수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다중공선성의 위험을 보이는 r = .70이상의 상관계수가 존재하지 않았고, VIF 값이 1.06 ~1.78의 값을 보여 다중공선성 위험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중다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6>, <표 7> 에 제시되어 있다.

1) 성별에 따른 가족건강성, 문화성향이 사회관계성향에 미치는 영향

대인관계성향 중 사회관계 성향에 미친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식에 의한 독립변수들의 설명력은 남학생은 34%, 여학생은 27%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었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학생의 경우, 문화성향

〈표 4〉 남학생들의 관련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남학생 (n=157)		문화성향				가족건강
		수평집단	수직집단	수평개인	수직개인	
대인관계성향	사회성향	.53***	.46***	.14	.18*	.43***
	표현성향	.22**	.26**	.24**	.41***	.34***
가족건강성		.44***	.49***	.20*	.26**	

* p<.05 ** p<.01 *** p<.001

〈표 5〉 여학생들의 관련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여학생 (n=125)		문화성향				가족건강
		수평집단	수직집단	수평개인	수직개인	
대인관계성향	사회성향	.46***	.42***	.14	.18*	.29**
	표현성향	.01	.10	.10	.39***	.03
가족건강성		.27**	.41***	.25**	.11	

* p<.05 ** p<.01 *** p<.001

중 수평적-집단주의($\beta = .35, p < .001$) 성향이 사회관계 성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가족건강성($\beta = .20, p < .01$)이 사회관계성향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었다. 여학생은 문화성향 중 수평적-집단주의($\beta = .32, p < .001$)만이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다. 즉,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문화성향 중 수평적-집단주의가 사회관계 성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것은 개인을 집단의 일부이면서 개인의 평등성을 강조하는 성향을 선호할수록 대인관계에서 동정적이고 남을 도와주기를 잘하고 타인의 장점을 존중하며 타인의 장점을 수용하고 남을 성심성의껏 대하는 포용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학생의 경우 가족 건강성이 대인관계 성향 중 사회관계성향에 영향을 주었다.

이 결과는 가족의 기능성 수준을 높게 지각할수록 대인관계의 사회관계는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가족의 기능성을 낮게 지각할수록 대인문제성향이 높게 나타난다는 선행연구결과(이문형, 1994; 최희량, 1998)와도 맥락이 일치하는 것이나, 여학생은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는 다른 결과였다.

2) 성별에 따른 가족건강성, 문화성향이 표현성향에 미치는 영향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학생은 문화성향 중 수직적-개인주의($\beta = .33, p < .001$), 수평적-개인주의($\beta = .16, p < .05$)와 가족건강성($\beta = .20, p < .05$)이 대인관계 성향 중 표현성향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들은 가족의 건강성이 표현성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옥(2005)의 연구에서 부모와 개방형의 의사소통을 하는 청소년의 경우 자기-과시, 반항-불신의 표현성향은 높게 나타났고, 자기표현에 적극적임을 알 수 있었다.

여학생은 남학생과 같이 문화성향 중 수직적-개인주의($\beta = .38, P < .001$)가 대인관계의 표현성향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쟁적이며 남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직적 개인주의 성향을 가지고

〈표 6〉 가족건강성, 문화성향이 사회관계성향에 미치는 영향

남학생		사회관계성향			여학생		사회관계성향		
		B	β	t			B	β	t
가족건강성		.17	.20	2.60**	가족건강성		.08	.12	1.36
문화성향 (집단주의)	수평집단	.31	.35	4.03***	문화성향 (집단주의)	수평집단	.29	.32	3.31***
	수직집단	.12	.12	1.35		수직집단	.18	.18	1.78
문화성향 (개인주의)	수평개인	.01	.01	.13	문화성향 (개인주의)	수평개인	-.01	-.02	-.19
	수직개인	.02	.03	.39		수직개인	.07	.10	1.15
R2(Adj R2)= .34 (.31) F=15.27***				R2(Adj R2)= .27 (.24) F=8.77***					

** p<.01 *** p<.001

〈표 7〉 가족건강성, 문화성향이 표현성향에 미치는 영향

남학생		표현성향			여학생		표현성향		
		B	β	t			B	β	t
가족건강성		.21	.20	2.44*	가족건강성		-.02	-.03	-.27
문화성향 (집단주의)	수평집단	.03	.03	.31	문화성향 (집단주의)	수평집단	-.07	-.06	-.60
	수직집단	.02	.02	.20		수직집단	.08	.06	.56
문화성향 (개인주의)	수평개인	.18	.16	2.23*	문화성향 (개인주의)	수평개인	.01	.01	.10
	수직개인	.34	.33	4.41***		수직개인	.38	.38	4.33***
R ² (Adj R ²)= .25 (.23) F=10.18***					R ² (Adj R ²)= .15 (.12) F=4.31***				

* p<.05 ** p<.01 *** p<.001

있을 때 대인관계에서 경쟁적, 과시적, 반항적인 양상이 표출됨을 알 수 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성별에 따른 청소년들의 문화성향과 가족건강성을 이해하고, 대인관계 성향과의 관련성을 살펴봄으로써 대인관계 성향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청소년들의 가족건강성, 문화성향을 수평적, 수직적 차원에서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로 분류하였고, 대인관계성향은 사회관계성향과 표현성향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변인들이 대인관계 성향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문화성향은 어떠한지, 대인관계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분석해 봄으로써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탐색적 자료제공에 그 목적이 있다.

중요 분석 결과를 통해 논의 및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라 각 변인들 간의 유의한 차이를 살펴볼 때, 먼저 문화성향은 성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성별에 따라 선호하는 문화성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최태진(2004)의 연구에서는 54.9%가 수평적 집단주의 성향

을 띠고 있었다. 그러나 한규석과 신수진(1999)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향이 수직적 집단주의에서 수평적 개인주의로 변화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수평적 개인주의에 대해 남, 녀 모두가 선호하는 성향으로 나타나고 있었던 점으로 보아 개인의 자율성을 인정하면서 개인들의 동등함을 중시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보여진다. 한국사회에서도 서구적인 생활방식으로의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점점 더 개인주의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되어지는 가운데 개인의 자율성과 평등성을 강조하는 수평적 개인주의는 앞으로 더 선호되는 문화성향이 될 것이다. 또한 문화성향에 대한 탐색은 집단원들의 가치관의 변화양상을 알아보는 것으로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후속연구를 통해 세대 간 문화성향의 차이를 알아보는 것도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대인관계성향에 대해 성별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사회관계성향과 표현성향이 좀 더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과시적-자기도취적인 성향을 보인다는 선행연구(김명규, 심혜숙, 채준호, 2000)와 방문희(1991), 윤정연(2000)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지만, 고려옥(2005), 남연희(2008)의 연구결과와는 동일한 결과이다. 이것은 여학생이 남학생들보다 타인과의 관계수용, 사교적, 우호적인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타인의 행동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여성들에게 대인관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계지향적인 성향이 사회화되어 주로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고, 남학생보다 여학생들이 자신의 표현에 적극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둘째, 성별에 따라 가족 건강성 및 문화성향이 대인관계성향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남학생이 지각한 가족 건강성은 여학생보다 대인관계성향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남학생들의 대인관계의 개입에 가족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음을 시사 하고 있다. 더불어 이러한 결과는 가족 안에서 자신이 관계를 맺고 있는 의미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강화시킴으로서 대인관계에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대인관계의 사회관계 성향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수평적-집단주의 문화성향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나와 타인의 평등을 강조하는 청소년들이 집단의 원활한 결속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집단의 통합과 조화를 강조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남, 여학생 모두 수평적-집단주의 성향이 사회관계 성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타인에 대한 수용과 사교적인 관계 형성, 우호적이고 동정적인 대인관계성향을 보였다. 대인관계의 표현성향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수직적-개인주의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자신의 표현에 있어 개인주의 성향을 선호할수록 적극적으로 자기표현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청소년에게 나타나는 외모 지상주의, 자기표현의 적극성, 자기들만의 개성표현, 선호 직업에 있어서 연애인, 방송인 등 청소년들의 선호변화 등이 이와 같은 결과를 증명하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남과 다른 자신만의 차별성을 선호하는 청소년들의 의식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대인관계의 선호 경향과 선호 직업과의 관계를 알아보는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청소년들에게 대인관계 맺음에 취약한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진로상담과 직업교육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성별에 따라 가족건강성 및 문화성향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았지만, 개인 및 가정환경변인에 의해서 대인관계 성향의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사료된다. 청소년들의 배경변인 즉, 실업계 학생들,

인문계 학생들, 가정환경, 소득수준 등과 같은 생태체계적인 배경변인과 다양한 가족생활양식을 토대로 문화성향과 대인관계 성향의 영향력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참고문헌

- 고려옥(2005). 청소년의 부모-자녀 의사소통 유형, 자아존중감 및 대인관계 성향과의 관계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근(2006). 학업성취에 대한 가족해체의 영향. *교육사회학 연구*, 16(1), 27-49.
- 김경희(2004). 기혼여성의 우울증상과 도움추구 태도에 관한 통합모형 검증.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기범(1996). 대인관계 속에서의 도덕성과 내집단-외집단 구별: 문화비교 분석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진(2008). 초등학교의 문화성향과 친구간 갈등해결 전략과의 관계.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연희(2008).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및 청소년의 자아분화와 청소년 대인관계 성향간의 관계분석.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옥경(2003). 부모의 양육태도 및 의사소통과 자녀의 대인관계 기술.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동일(2007). 청소년의 가정건강성, 학교생활건강성 및 자아탄력성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귀순(2001). 가족의 기능에 따른 아동의 자기 역량 지각과 대인관계 성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현숙·임말란(2005).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수평적 대인관계 성향의 매개효과. *청소년학 연구*, 12(1), 103-126.
- 정현숙·유계숙(2008). *가족관계*. 서울: 신정
- 안병희(1984). *대인관계 적응성과 성향검사의 타당도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문형(1994). *가족기능성이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윤조(2007). **청소년의 문화성향과 스트레스 지각, 대처 방식 및 우울 취약성의 관계**.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어은주·유영주(1995). 가족의 건강도 측정을 위한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1), 145-155.
- 오운선(2000). **가족체계 유형의 청소년 적응 및 학교생활 리더십 영향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계숙(2004). 건강가족의 요소에 관한 연구: 가족체계와 건강성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2), 25-42.
- 유현수(2005). **청소년의 문화성향과 자기 효능감, 스트레스 지각 및 대처방식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상민(1993). **아동후기의 유머 반응에 따른 대인관계성향 및 학업성취도의 차이분석**.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정아(2005). **청소년기의 가족건강성과 학교적응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수자(1988). **부모-자녀간의 대인관계 유사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양숙(2004). **청소년의 배경변인, 가정적 자아존중감, 대인관계성향이 예절수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3(2), 23-41.
- 정영희(2005). **청소년의 문화성향과 공동체의식, 대인신뢰 및 유사성 지각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재석(1976).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서울: 개문사.
- 최지은·신용주(200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관계, 또래관계, 교사와의 관계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2), 199-210.
- 최태진(2004). **고등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정신건강: 부모애착과 수평적·수직적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의 상호관계와 그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15(2), 117-152.
- 최희량(1998). **가족체계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대인문제 성향에 관한 연구**. 서강대 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광희(1986). **청소년이 지각한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대인관계 성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청소년개발원(2004). **청소년 갈등해결을 위한 정책방안**. 갈등원천, 해결유형 및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한규석·신수진(1999). **한국인의 선호가치 변화-수직적 집단주의에서 수평적 개인주의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2), 293-310.
- 황인정(2008). **청소년의 무용활동 참여에 따른 대인관계성향이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arnhill, L. R. (1979). **Healthy family system**. *Family Coordinator*, 28, 94-100.
- Dekovic, M., & Janssens, J. M. A. M. (1992). **Parent'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child's sociometric status**. *Developmental Psychology*, 28(5), 925-932.
- Heider, F. (1964).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Relations*.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 Hofstede, G. (1980). *Culture's consequences: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work-related values*. Newbury Park, CA: Sage.
- Jose, P., D'Anna, C. A., Cafasso, L. L., Bryant, F. B., Chiker, V., Gein, N., & Zhezmer, N. (1988). **Stress and coping among Russian and American early adolescents**. *Development Psychology*, Vol. 34(4), 757-769.
- Krech, D., Crutchfield & Ballachey (1982). *Individual in society*. New York: McGraw-hill Book Co, Inc.
- Ohbuchi, K-I., Fukushima, O., & Tedeschi, J. T. (1999). **Cultural values in conflict management: Goal orientation, goal attainment, and tactical decision**.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0, 51-71.
- Olsen, D. H., & DeFrain, J. (2003). *Marriages and families: Intimacy, diversity and strengths*. NY: McGraw-Hill.
- Rahim, M. A. (1992). *Measuring Conflict in Organization*. Westport, CT: Parage Publisher.
- Singelis, T. M., Triandis, H. C., Bhawuk, D. P. S., & Gelfand, M. J. (1995). **Horizontal and vertical dimensions of individual and collectivism: A theoretical and measurement refinement**. *Cross-Cultural Research*, 29, 240-275.
- Trandis, H. C. (1989). **The self and social behavior in**

- differing cultural contexts. *Psychological review*, 96, 506-520.
- Trandis, H. C. (1995).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Oxford: Westview.
- Trandis, H., & Gelfand, M. J. (1998). Converging measurement of horizontal and vertical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118-128.

<국문요약>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성별에 따라 문화성향과 가족건강성을 이해하고, 대인관계 성향과의 관련성을 탐색하는 한편 이들 변인이 대인관계 성향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대인관계성향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대인관계성향 중 사회관계성향은 남학생은 문화성향 중 수평적-집단주의 성향과 가족건강성의 영향력이 컸고, 여학생은 문화성향 중 수평적-집단주의가 영향력 있게 나타났다. 대인관계 중 표현성향은 남학생의 경우 가족건강성, 문화성향에서 수직적-개인주의, 수평적-개인주의가 영향력이 컸다. 여학생은 수직적-개인주의가 대인관계의 표현성향에 영향력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 논문접수일자: 2009년 10월 9일, 논문심사일자: 2009년 10월 14일, 게재확정일자: 2009년 12월 24일